

		보 도 자 료		JEONJU IFF
배포일	2026. 4. 30	보도 요청일	2026. 4. 30	
담 당	홍보미디어팀	취재 문의	1899-5433 (홍보미디어팀: 4번) publicity@jeonjufest.kr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성료! 국내외 거장들과 2,000여 명 관객이 함께한 축제의 시작

- 그레타 리, 켄트 존스, 차이밍량, 배종옥, 변영주, 권해효, 김현주 등
국내외 영화인과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 등 한자리에
- 한국영화계의 발전을 이끈 국민배우 故 안성기 배우 특별공로상 시상,
차남 안필립 대리 수상
- 레드카펫 행사 · 개막공연 오지은 · 개막작 <나의 사적인 예술가> 상영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4월 29일(수) 개막식을 성대하게 개최하며 10일간의 여정을 출발했다.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레드카펫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은 4월 29일(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개최됐다. 개막식에는 개

막작 <나의 사적인 예술가>의 켄트 존스 감독, 그레타 리 배우, 차이밍량 감독, 배종옥 집행위원, 올해의 프로그래머 변영주 감독, 심재명 심사위원, 이해영 심사위원, 고아성 심사위원을 비롯한 심사위원단,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 윤종훈 가치봄 앰버서더, 김현주 배우, 채정안 배우를 비롯해 올해 '전주X마중' 파트너인 고스트스튜디오 소속 배우 11명도 참석하는 등 국내외 게스트가 레드카펫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아울러 2,000여 명의 관객이 개막식을 방문하며 영화제의 시작을 함께하며 분위기를 더했다.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개막식은 사회자 신현준·고원희 배우의 경쾌한 진행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전주국제영화제는 개막식을 찾은 관객들에게 영화제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작품을 소개했다. 민성욱·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찾아주신 영화인과 영화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재신임을 받아 앞으로 3년간 한 번 더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게 된 만큼, 지금까지는 뿌리를 다져왔다면 앞으로는 더욱 단단하고 크게 성장시키겠다”고 기대와 포부를 밝혔다.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뒤이어 올해 특별 공로상 수상자인故 안성기 배우의 시상식도 진행됐다. 개막식에는 아들 안필립이 참석했으며,故 안성기 배우가 20년간 입던 턱시도를 입고 대리 수상해 의미를 더했다. 영화제 기간에는 '특별전: 조금 낯선 안성기를 만나다'를 통해 안성기 배우의 작품 세계를 조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시기의 작품을 통해 안성기 배우의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과 깊이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특별 공로상 시상 후 국제경쟁, 한국경쟁, 한국단편경쟁, 후지필름코리아상, 넷팩상 심사위원, J 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로 선정된 변영주 감독 등 주요 게스트가 차례로 소개됐으며, 현장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이어 작가이자 가수인 오지은이 개막 공연으로 'NONE', '고작'을 부르며 개막식의 흐름을 더욱 풍성하게 채웠으며, 문성경 프로그래머와 함께 개막작 <나의 사적인 예술가> 소개 및 상영이 진행됐다. <나의 사적인 예술가>는 한때 잊혀졌던 예술가의 재발견이라는 우화적 구성을 바탕으로, 과거를 잊지 못하는 뉴욕과 예술계의 현실을 함께 비추는 작품이다. 시와 유머, 따뜻한 시선이 어우러진 이 작품에 관객들은 뜨거운 호응과 박수를 보냈다.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는 5월 8일(금)까지 영화의거리 및 전주시 일대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행사로 관객과 만난다.